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고경석



주역의 문언전에 '적선지가 필요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이란 문구가 있다.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다'라는 뜻으로,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하면 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子孫)까지 미친다는 말이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다.

세상 사람들이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적선을 며칠 전 담양군에서 한 노인이 실천했다.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학생을 시켜 현금 200만 원이 든 상자를 군청에 전하고 사라진 것이다. 상자에는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당부의 쪽지가 들어 있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7월 소방대원 자녀를 돕는데 써달라며 익명으로 2억 원을 놓고 간 독지가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부문화 정착 요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

시한 '희망 2010 나눔캠페인'이 마무리됐다. 광주·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광주는 목표액 20억5천만 원 중 19억 4천 700만 원을, 전남은 48억 원 목표에 49억 3천200만 원을 모금했다.

나누면 행복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이 분석한 우리나라의 성금모금액을 보면 개인과 기업의 비중이 4대6의 비율로 아직까지 우리의 기부문화는 대중화되지 못했다.

흔히 '없는 사람 심정은 없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 있다. 평생 국밥 장사를 해온 할머니가 어렵사리 모은 수억 원의 돈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가 하면 한 종이나 고물을 주위 모은 돈을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사연도 우리의 주변에는 적지 않다.

기부문화가 꽃핀 미국에서는 전체 가구

의 89%가 기부에 참여한다고 한다. 기업의 기부금 비율이 4.3%에 불과하다니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1인당 기부금액도 차이가 크다. 미국의 1인당 기부금액은 200만 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기부금액은 채 10만 원이 되지 않고 한국인의 43%는 단 한 번도 기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미국의 기부문화가 확산된 데는 기업체들이 실천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 그 모태가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

국 기부문화의 상징인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전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했다. '부자로 죽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는 유명한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다.

이러한 정신은 현재 미국의 갑부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오프라 윈프리, 조지 소로스, 테드 터너,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가 공인으로서 왕성한 자선활동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1996년 이후 이들이 기부한 금액은 이미 90조 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재벌들

도 상당액의 성금이나 기부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그 돈이 회사 것인지, 개인의 돈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빌 게이츠가 기부한 천문학적 금액은 개인 돈이지, 회사 공금이 아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시대

선진국에선 '부의 세습'을 찾기 어렵다. 사회에서 쌓은 부와 명예는 사회에서 획득한 만큼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재벌들이 지탄 받는 것은 불법 비자금이나 부당한 부의 세습 탓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300년 전 경주 최부자는 '홍년에 땅을 늘리지 말고 백 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교훈을 후세에 남겼다.

남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적선에는 두 가지 진심이 있어야 한다. 바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과 순수한 기쁨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고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 함께할 때 자신이나 기부는 더욱 의미가 커지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 없는 담양 할아버지의 기부는 우리에게 신선한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사회2부장) ksgo@kwangju.co.kr

시설

기초의회 '2인 선거구제' 당장 철회해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6일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기로 했다. 최근 시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정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무시한 채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기로 한 것이다.

시의회의 이 같은 행위는 현재 시의원 19명 전원을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초의회마저 다른 정당 진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역주의에 편승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의회를 잠악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2005년 4인 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보다 실력 있는 인재와 진보·소수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따라서 광주시의회가 4인 선거구제를 폐지한 것은 이런 법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다.

특히 이번 시의회의 선거구제 분할 처리과정도 논란거리다. 당시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의 출입을 막고, 간사가 임의로 사회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원장이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겨거나, 위원장 사고시에 한해 간사가 사회를 볼 수 있게 돼 있는 시의회 회의 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날치기 처리인 것이다.

광역의회가 됐든, 기초의회가 됐든 특정 정당의 독점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 전원이 같은 정당 소속인 의회가 과연 집행부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나 아니면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수정당과 정치신인 등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광주시의회는 명분도 없고, 시대에 역행하는 2인 선거구제 조례안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초고층아파트 일색인 광주도시 재개발

광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5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광주도시 전체가 초고층 빌딩 숲으로 채워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8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광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예정구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 전체 주거지역 면적 7천476만㎡의 11.8%인 880만6천249㎡가 사업대상지로 지정될 정도다. 최근에도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 5곳이 늘어났으며 올해 말 확정될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공계획'에서도 예정구역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도시 재개발사업이 초고층아파트 일색인 것은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초고층아파트로 구도심 일대가 뒤덮일 경

우 도시미관은 삭막해진다. 교통체증과 열섬현상과 같은 환경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대형화재 발생시 대처하기도 쉽지 않다.

도시 재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천연일물적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설계기 침체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8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광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예정구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 전체 주거지역 면적 7천476만㎡의 11.8%인 880만6천249㎡가 사업대상지로 지정될 정도다. 최근에도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 5곳이 늘어났으며 올해 말 확정될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공계획'에서도 예정구역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서울 등지에서는 성냥갑 같은 초고층 아파트보다 단지 안팎을 철저히 분리하는 폐쇄적인 건축 형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구 도심의 옛 골목길과 한옥을 보존하고 중·저층의 중앙정원형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주거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낡은 주거공간을 할어내는 방식의 도시 재개발사업은 이제 달라질 때가 됐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평칼럼

최희동



지난 2일 공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2 지방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지역의 일꾼임을 자부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활동에 돌입한 것이다.

선거라는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을 뽑는 것은 그것이 현재의 제도로는 최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한 틀에 의해 공정한 게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개의 지방선거가 입후보한 후보들 간에 평소 서로를 잘 알고, 혈

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그저 끝도 없이 상대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껄이는 사람은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이다. 다양한 경험과 밝은 지혜를 갖지 못하고 남의 흉내나 내는 사람은 어느 누구의 미래도 책임지지 못한다.

예수님은 '높은 자가 되려거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첫째가 되려하면 모든 이의 종이 되려는 말씀은 기억하지 못한다.

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연관적이거나 학연, 지연에 의한 선, 후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평소 좋았던 관계가 선거라는 판이 되다 보면 마치 부모라도 죽인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책결정은 실행되고 남의 흉을 보고 헐뜯다가에 바쁘다. 자신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 남이 하는 일은 나쁘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판친다. 더 나아가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한다. 선거에서만 중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의 일을 맡았다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은 지역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선거 기간 내내 상대의 흉이나 보고 헐뜯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화합의 주역이 되며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생각과 태도가 보잘 것 없고, 말에 뜻이 담겨 있지 않으며, 자신의 견해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의견에 휩쓸리는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지방선거는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는 일꾼을 뽑는 수단이다. 섬김의 마음과 희생, 봉사정신 없이 자리에만 연연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통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다. 맡은 책임이 클수록 권력을 기반 삼아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

선거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잘 지켜야 한다. 선거법이 개정되어 정치신인들도 자신을 알릴 기간이 늘었고, 수단도 다양화되었다. 맑고 깨끗한 정치 환경을 만들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면 자신부터 선거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정책과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한다. 남을 헐뜯어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 마음을 얻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유권자들도 누가 진정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지역민을 화합하게 하고 지역을 신바람나게 할 것인지, 말과 행동은 일치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그래서 6월 2일은 신명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평상'을 수여 합니다. 은평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평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아이들 사먹는 '길거리 음식' 짜게 먹는 습관 불러

평소 아이들이 밖에서 사먹는 간식류가 짜고 자극적이므로 그런 걸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채 근질거리고 톤만 쥐어준 게 너무나 미안했다. 떡볶이뿐 아니라 포장 마차에서 파는 어묵 등 간장을 찍어먹는 튀김류를 생각해보니 다들 짠 음식이다.

짜게 먹어 좋을 게 없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일인데 이렇게 짠 음식을 계속 먹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짜게 먹으려는 습관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각종 성인병에 걸릴 위험한 커질 뿐이다. 세계 보건기구의 2천 밀리그램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렇게 짠 과자와 간식류 때문에 기준치 서너 배는 넘게 섭취한다고 들었다. 위생당국에서 길거리 간식류의 염도에 대해서도 지도 관리 감독을 해줄 수는 없을까. ▲김현주·광주시 동구 산수동

기고

유광중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부터 세계 경제가 위기의 정점을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가계 실질소득이 많이 감소하여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경기회복 흐름이 서민생활 어려움 완화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상가상으로 우리 지역의 중견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어 협력업체를 포함한 지역경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

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급수, 연료, 가스 등의 안정적인 공급대책도 세웠다. 급증하는 귀성차량 불편해소를 위해 상습교통 체증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국립 5·18 묘지와 시립공원묘지 성묘객을 위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버스노선도 확충할 계획 이다.

또한, 연휴기간 중 시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검소하고 따뜻한 설날을

다. 그러나 다형스럽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상품권이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참여로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물질뿐 아니라 이웃과 정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한다.

올해는 설 연휴가 짧아서 고향 가는 길에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경제도 어려워 일부에서는 고향에도 선물만 보내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생활안정대책이 마련되어 모두가 검소하고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에서는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대비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 같이 검소하고 따뜻한 설날을 보내기 위해 공직자가 먼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설을 위문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사회 전반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 속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 등 청소

유지하면서 응급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여 환자 발생시 119구급대를 통한 비상수송과 진료체계도 유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검소한 명절 보내기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선물 안주고 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청탁성 선물이나 고품품 등의 수수사례를 차단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가 대시민 신뢰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청렴 문화를 실현해 나 갈 것이다.

더불어 검소하고 낮은 자세로 설날 마음을 귀담아 들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수립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한다.

'천 사람의 혀는 쇠도 녹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 어떻게 되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영적인 힘이 있다. 덕담이란 말로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빌어주는 일종의 언어 주문인 것이다.

모두가 힘겨워하는 경제위기의 상황이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따뜻한 덕담 속에 가로막혔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새 희망을 다지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광주시 총무과장)

최저임금 지키지 않는 업주 단속 철저해야

"시급 : 합의 후 결정" 이런 문구를 구인 잡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의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4천 원을 훨씬 밑도는 금액일 뿐 아니라 시급의 수당(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며칠 전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찾게 됐다. 시급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화해 봤더니 그곳에서는 3천원 초반의

시급을 제시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최저임금법을 토대로 항의를 하자 점장은 그 금액을 주지 않아도 일하겠다는 사람만 많다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일반 작은 업체나 소규모 영업점은 오죽할까, 대졸자들은 취업난에 허덕이며, 실직한 기성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일거리를 찾는 요즘 노동력만 뺏어가는 나쁜 고용주들의 철저한 단속과 감독을 바란 다. ▲이종삼·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無等鼓

어린 시절 어머니는 무척 멋쟁이였다. 나들이라도 할라치면 굵 높은 구두에 짧은 치마를 입었다. 패션에 민감했고 당시만의 스타일에 자부심이 높았다. 그런 어머니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었다. 엄지발가락이 안으로 휘고 발발이 튀어나와 어머니는 신발을 벗는 자라는 꺼렸고 맨발을 보이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그런

발발이 각각 연평균 19.1%, 37.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환자의 약 87%가 여성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수술환자는 2004년 1천208명에서 2008년 4천807명으로 연평균 41.8%, 5년간 4배나 증가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수술환자의 92%가 여성이었다. 또 40대부터 급증

킬힐의 눈물



하기 시작해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지외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형을 악화시키는 높은 굽의 신발을 피하고 편한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요즘 젊은 여성들의 걸음걸이는 꼭예를 보듯 아찔하기까지

다. 외관을 중시하는 세태에 매몰돼 하이힐을 넘어서 킬힐(굽 높이 10cm 이상)로 치달고 있다. 패션이나 유행도 좋지만 아찔한 보행은 자신의 발에 대한 학대에 다름없다. 발 건강을 해치고 난 후 후회는 소용없다. 편한 신발, 편한 걸음걸이가 더 자연스런 아름다움이 아닐까. /김일환 여문대재무장 kih8@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